**유엔 인권 전문가, 두 달 내 남북 가족 상봉 행사 재개 지지**

제네바 (2017년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1950-1953)으로 헤어진 가족 상봉 재개 제안을 지지하며, 대다수 고령인 가족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수 천 명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락이 닿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적어도 소식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5일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국회 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지난 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 종업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 종업원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 논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8월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환영한다. 이산가족이 고령이라는 점, 또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치적 고려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남측에서 1만 3000명 가량이 1953년 이후 북측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며 이름을 올렸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족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사망했다. 생존한 이들 대다수도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지난 5월 9일 취임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북측 내 말라리아 대비 공동 방역 재개를 추진하는 등 북측과 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이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 문제를 다시 논의할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 양측이 가족 상봉을 논의할 좋은 기회이며,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활동 재개에 합의할 수 있다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이 호소해 온 상봉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http://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Report_TORN_APART.pdf)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PIndex.aspx)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http://seoul.ohchr.org/EN/Pages/HOME.aspx)

*추가 정보 및 언론사 영어 문의는 Tarek Cheniti**(+82 2 725 3522/* [*tcheniti@ohchr.org*](mailto: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안윤교*** *(+82 2 725 3523 /* [*yahn@ohchr.org*](mailto:yahn@ohchr.org)*)로 문의주십시오.*

기타 유엔 위임권한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비어 셀라야(Xabier Celaya)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mailto:xcelaya@ohchr.org))

트위터: [@UNHumanRights](http://twitter.com/UNHumanRights) 페이스북: [unitednationshumanrights](https://www.facebook.com/unitednationshumanrights)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걱정이 있나요? 다름 사람의 권리를 위해 “스탠드업 (STAND UP)” 해보아요.

#Standup4humanrights 웹사이트 방문하세요: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http://www.standup4humanrights.org/)